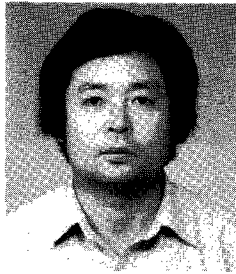


업종간 특수성 살려 공존의 길 모색하길



민 군 홍
충청농장 대표

대 한양계협회 제15대 회장에 당선된 장대석 회장께 종계·부화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종계·부화업계는 IMF가 찾아오기 1~2년 전부터 시련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IMF 체제 이후 종계부화인들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기를 기대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농장에서 결국 도산을 맞이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 표면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경기는 그동안 함께 업을 이끌어 가던 양계인들이 도중하차하면서 남긴 고통과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이 그동안 무절제하게 업을 이끌어온 한탕주의로 팽배해 있던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

아올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책임을 경기위축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업계를 함께 이끌어온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업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양계업계는 각 업종별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임회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업종별로 특성을 살려 전체 양계인들이 함께 발전적인 양계업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산물이 개방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양계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보다 진보할 수 있는 양계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종계·부화업을 모태로 하여 양계업이 우리나라에 정착된지 3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초창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계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양계인들이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호경기를 모든 양계인들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도방안을 강구하여 대비책을 양계인들에게 제공하여 과거와 같은 불행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모든 양계인이 처해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보다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를 구심점으로 양계업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양계**